

萬海 韓龍雲의 時調와 漢詩

李 鍾 建*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용운의 시조 35편 45수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韓龍雲의 시조를 관련 한시를 함께 읽으면서 그 素材가 주제와 연관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달과 신앙, 봄과 희망, 가을과 상실, 칼과 애국이 그것이다.

달과 신앙에서는 작품으로 「무궁화를 심으과저」를 택했다. 이 시조는 모두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 편 모두에 달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시인이 달의 빛을 따르는 시인의 신앙으로 자리잡은 素材로 그려졌다.

한시 「獄中感懷」에서 달은 獄中에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明月로 믿음의 대상이었다. 「月方中」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봄과 희망에는 「早春」 3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수는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고 더욱 단단히 결속 무장하는 것을 표현했고, 둘째 수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현실을 타개하는 매화의 의지를 그렸다. 셋째 수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고진감래의 희망을 읊었다.

가을이 喪失을 의미하는 경우는 시조 「秋夜夢」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조 「秋夜夢」 첫 수는 가을밤 빛소리로 님을 상실했고, 둘째 수는 상실의 서러움을 그렸고, 셋째 수는 상실의 허전함을 그렸다. 넷째 수는 상실에 대한 한탄을 그렸다.

애국을 주제로 한 시조에는 「男兒」와 「우리님」이 있다. 이 시조에는 모두 칼이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조국을 지키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시 「寄學生」과 「安海州」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는데, 「黃梅泉」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지 않고 매천선생의 절개를 높이 기렸다.

핵심어 : 달과 신앙, 봄과 희망, 가을과 상실, 칼과 애국, 결속, 무장, 고진감래, 믿음, 님의 상실, 조국을 지키는 강렬한 의지

* 수원대

I. 序論

萬海 韓龍雲의 시조는 新丘文化社에서 발행한 『增補 韓龍雲全集』에 32편 41수가 전하고, 여기에 없는 것 3편 4수가 瑞文文庫 246책 『韓龍雲詩全集』에 실려 있고, 또 3수는 같은 시조인데 제목만 다르게 전한다. 이렇게 해서 필자가 확인한 것은 한용운의 시조는 모두 35편 45수다. 그런데 2005년 『시조생활』 62호 「만해와 시조」 좌담에서 유성규는 37편 43수가 발굴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¹⁾

이 논문은 한용운의 한시를 곁들여 그의 시조를 분석 비평 함으로써 만해 시조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문학사상의 위상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뜻이 있다. 지금까지 『님의 침묵』의 명성 때문이었던지는 모르지만, 한용운의 시조 연구에 관련된 논문은 적다.

만해 한용운의 시조를 거론한 글로는 1979년 김종균의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²⁾, 1980년 박항식의 「한용운의 시조」³⁾, 2000년 고명수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⁴⁾, 2005년 한용운의 시조에 대해서 『시조생활』에서 좌담을 게재한 「만해와 시조」⁵⁾가 있다.

김종균의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는 獄中 漢詩와 그에 관련되는 시조를 거론했다. 박항식의 「한용운의 시조」는 한용운의 시조 「犇牛莊」과 「春晝」를 분석 평가하면서 한용운의 정신 次元을 높였다.⁶⁾ 고명수의

-
- 1) 유성규, 만해와 시조, 시조생활 62호, 만해와 시조, 138쪽. “유성규 : 37편 43수 까지 내가 찾아 왔는데 훨씬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시조시인-만해, 이렇게 붙여버려야 되겠는데요.”
 - 2) 김종균,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 어문연구 21호, 1979.
 - 3) 박항식, 한용운의 시조, 한국문학연구 3집, 1980.
 - 4)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 동국어문학 12집, 2000.
 - 5) 시조생활사, 만해와 시조, 시조생활 62호, 2005.
 - 6) 박항식, 한용운의 시조, 한국문학연구 3집, 315-316쪽. “法에 勝利를 견우어 어떠한 苦痛과 生死에도 解脫하여 自身을 救濟한 그 段階에서 다시 主體가 德으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는 만해는 문단 외적 시인으로 당시 문단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테두리에 갇히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민족적 현실에 눈 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만해의 시조는 36수가 전해지고 있다면서, 만해의 시조 창작 동기를 시조가 주제문학이 아니라 漢詩처럼 일종의 생득적인 私文學이거나, 주제의식 없이 써온 일상적인 생활의 서정적인 표출이라고 말했다.⁷⁾ 이어서 고명수는 만해 시조의 내용을 나름대로 분류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서정과 포부와 신념,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서정을 노래했다고 했다.⁸⁾

2005년 시조생활사에서 주선했던 좌담 「만해와 시조」는 만해의 시조를 통해서 그의 애국사상, 한국의 혼과 넋을 알 수 있다면서, 전보삼은 만해는 한시를 제일 먼저 짓고, 시조를 짓고, 현대시를 창작했다고 장르별 창작 순서를 말하기도 했다.⁹⁾ 이 좌담장에서 언급한 시조는 「男兒」, 「사랑」, 「무제 13수」 중 제1수 이렇게 모두 3수다.¹⁰⁾

본고에서는 先行 논문을 바탕으로 시조를 논함에 있어, 한시를 참고 자료로 이용하려고 한다. 만해의 시조를 논할 때 처음 논문이 1979년 김종균의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였다. 필자도 만해의 한시를 읽으면서 그의 시조와 시상이 통하는 시조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또 고명수의 말대로 시조가 주제문학이 아니라 漢詩처럼 일종의 생득적인 私文學이거나, 주제의식 없이 써온 일상적인 생활의 서정적인 표출이라고 한다면,

로 化하여 不退轉의 位에 있는 그러한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서술했다.

7)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 동국어문학 12집, 42-43쪽.

8)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 동국어문학 12집, 43쪽.

9) 시조생활사, 만해와 시조, 시조생활 62호, 125쪽. “전보삼 : 아 그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만해는 시조를 먼저 썼습니다. 현대시보다는. 처음에는 한시를 썼고, 원래 한학자였으니까 한시를 썼고, 시조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현대시를 썼습니다.”

10) 시조생활사, 만해와 시조, 시조생활 62호, 120-145쪽.

한시는 시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시조는 같은 작가가 지은 한시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한용운의 시조를 읽으면서 먼저 시조의 素材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같은 소재가 유난히 반복 사용되었고, 같은 소재인 경우 시상이나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논의를 전개해 가면서 증명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용운 시조의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다. 더 다양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논문에선 이렇게 한계를 지어 보았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면서 한용운의 경우 시조의 素材와 한시의 素材가 같으면 주제나 시상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었다.

II. 본론

만해의 漢詩「詠閑」은 6行 詩다. 形式上 3行 詩인 시조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詠閑

窮山寄幽夢	깊은 산속에 부치니 그윽한 꿈
危屋絕遠想	집은 높은 데라 한없이 생각은 달리고
寒雲生碧澗	찬 구름 시내에서 일면
纖月度蒼岡	가냘픈 달은 언덕을 지나느니
曠然還自失	텅비어 엇매임 없는 몸은
一身却相忘	도리어 제가 저를 잊기도 해라

이 한시를 시조의 형식으로 옮겨 보면,

窮山에 幽夢하니 危屋에 생각 먼데
 찬 구름 시내 일고 고운 달 蒼岡 지나
 텅비니 저절로 잃어 한 몸 문득 잊노라

시조 형식에 맞추느라고 어휘를 골라 보았다. 1구와 2구가 대우로 되어 있다. 또 3구와 4구도 대우로 되어 있다. 5구 앞에는 “曠然”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조 종장 첫머리 감탄의 구절을 넣는 것과 비슷하게 구성했다. 이런 형식이 시조의 형식과 흡사하게 보인다. 만해는 6행 한시를 이렇게 시조 형식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

「詠閑」은 자연 속에서 無我的 경지를 그린 시다. 중심 소재는 달이다. “寒雲”과 “纖月”로 하여 “曠然”히 “相忘” 하는 무아의 경지를 읊었다.

이 한시로 하여 한용운의 경우 한시와 시조의 만남을 考究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

1. 신앙

달을 素材로 한 시조 작품들은 「無窮花를 심으과저」, 「成功」, 「사랑」이 있다. 「成功」에서는 “늪라서 열나홀 달을 윈 달이라 하던가”라고 하여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다. 참다운 성공은 완벽한 보름달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달을 사용하였다. 「사랑」에서는 사랑은 “달보다 빛나라라”라고 하여 사랑의 아름다움을 달빛에 비유했다.

無窮花를 심으과저
 - 獄中詩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 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桂樹 나무 버혀내고 無窮花를 심으과져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 달아
이지러짐 있을 때에 사랑으로 도우과져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가이없이 비친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님을 쏘는 달아
구름재(嶺)를 넘어가서 너의 빛을 따르과져

〈한용운시전집, 236-237쪽〉

이 시조는 친구문화사의 『增補 韓龍雲全集』과 서문문고의 『한용운시전집』에서 그 제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증보 한용운전집』에는 “無窮花 심고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용운시전집』에는 “無窮花를 심으과져”라고 기록되었다. 『한용운시전집』에서는 “심으과져” “도우과져” “따르과져”로 표기 되었는데, 『증보 한용운전집』에는 “심고자” “도우고자” “따르고자”로 기록했다. 『증보 한용운전집』은 1979년 초판인쇄이고, 『韓龍雲詩全集』은 1976년이 초판인쇄다. 필자는 『한용운시전집』이 더 원본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시조를 보면 달은 無窮花를 심는 곳이며, 나의 이지러진 부분을 사랑으로 도와 주는 달이며, 결국 시인이 달의 빛을 따르는 시인의 꿈이 이룩되는 素材로 그려졌다. 제1수에서 無窮花를 심는다는 말의 의미는 달에 나라의 독립을 맡기는 의미일 수 있다. 믿고 의지하는 달이 그려져 있다. 제2수에서 “이지러짐 있을 때에 사랑으로 도우과져”라는 말도 달을 믿고 부탁하는 시인의 마음이 내재 되어 있다. 제3수에서 달에게 “너의 빛을 따르과져”라고 한 것은 달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인이 따르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달을 통해서 보이는 사랑과 순종은 불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을 素材로 하고 이 시조와 비슷한 환경에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漢詩에 「獄中感懷」가 있다.

獄中感懷

一念但覺淨無塵	물처럼 맑은 심경 티끌하나 없는 밤
鐵窓明月自生新	철창으로 새로 돋는 달빛 고와라
憂樂本空唯心在	憂樂이 空이요 마음만이 있거니
釋迦原來尋常人	釋迦도 원래는 예사 사람일 뿐

〈韓龍雲全集 卷 I, 174-175쪽〉

첫 구절의 번역을 “물처럼 맑은 심경 티끌하나 없는 밤”으로 했는데 “一念但覺”이라는 말은 ‘한 생각 다만 깨달으니.’라고 해서 깨달음을 읊었다고 해야 좋을 것이다. “淨無塵”은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함을 말한 것이지만 첫 구절에 밤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2째 구절을 보면 “明月”이 있으니 밤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절의 “自生新”도 “새로 돋는 달이 고운 것”이 아니라, 철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생기가 있고 새롭게 느껴진다는 말로 해석해야 좋을 것이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장소에 달빛이 생기가 있고 새롭게 느껴짐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끗한 주위 환경으로 다시 깨달았다는 말이다.

셋째 구절에서 근심과 즐거움은 본래 空의 세계, 한갓 허상일 뿐이다.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 자기하기 나름이다. 결말을 釋迦와 예사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대승적 불교관처럼 한용운 자신의 무한한 가치, 세상 속에서 신념에 따라 일어서야겠다는 의지를 달빛을 통해서 언어내는 의미 있는 장면을 그린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달빛은 獄中에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明月’이다. 달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는 이런 환경에 대한 反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달을 통해서 환경을 재인식하고, 옥중에서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있다.

만해는 달이 떠서 지는 것을 素材로 한시 다섯 수를 지었다. 「見月」, 「月欲生」, 「月初生」, 「月方中」, 「月欲落」 이 중에서 「月欲生」은 아직 달이 뜨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운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다른 시들은 달의 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見月」에서는 달이 삶을 비추어 주는 긍정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佳期”가 달이 있을 때이다. 「月初生」은 山家의 가난함도 잊을 수 있도록 아주 원만하게 등실 뜨는 달을 그렸다. 「月方中」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범접하지 못할 먼 곳에 있으면서 즐거움을 주고 우러러 보게 되는 달을 그렸다. 「月欲落」은 지는 달을 아쉬워하는 心思를 묘사했다.

달에 대하여 장석문과 강경애는 “만해의 한시 가운데 ‘달(月)’은 45회나 나타나는 시어이다. 만해의 시에서 달은 잃어버린 조국의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 생명을 주는 의미를 지닌다. 달은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빛이요, 항상 마음속에서 광명을 발휘하는 佛性이다.”¹¹⁾¹²⁾¹³⁾라고

11) 강경애,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8. 33쪽.

12) 장석문,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5쪽. 예는 “근해의 시에서 달은 잃어버린 조국의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이상이다. 달은 조국 광복이요, 항상 마음 속에서 光明을 발휘하고 있는 佛性이다. 근해의 漢詩 가운데서 ‘月’은 45회나 나타나는 詩語이다.”라고 했던 것을 강경애가 인용했다.

13) 이희숙,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쪽. “이렇듯 만해는 인간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도 흘려 본다. 만해는 생활 속에서 달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던 모양이다. 만해의 한시 가운데 달은 45회나 나타나는 詩語이다. 만해의 시에서 잃어버린 조국이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 생명을 주는 의미를 지닌다. 달은 잃어버린 祖國 光復을 상징하는 빛이다. 달은 만해의 시에서 잃어버린 조국의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이상이다.”라고 그 의미가 같은 논의를 전개했다.

논했다.

김광원은 “無聲處의 경지에서, 萬海는 禪의 世界의 고요하고 깊은 感動을 詩心으로 표출하였다 할 것이다.”¹⁴⁾라고 보았다.

月方中

萬國皆同觀	온갖 나라 다 함께 우러러 보고
千人各自遊	모든 사람 제각기 즐기며 노네
皇皇不可取	너무나 빛나기에 가질 수 없고
迢迢那堪收	먼 하늘 걸렸거니 어찌 손대리

〈韓龍雲全集 卷I, 117쪽〉

이 시를 徐廷柱는 다르게 보고 있다.

달은 한 복판에

萬 나라가 달을 다 같이 보건만
 놀기는 사람마다 제멋대로요
 너무 눈부시여 손도 못대고
 너무 높고 멀어서 가까이 못해 그렇지.

〈萬海 韓龍雲 漢詩選, 134쪽〉

未堂의 번역이 더 바른 것 같다. 한시는 對偶를 생각해서 짓는데 “만 나라가 달을 우러러 보지만/놀기는 사람마다 제멋대로요”라고 해야 대우로 적합하다. 『韓龍雲全集』에서 달을 우러러 본다고 했는데 “萬國皆同觀”이라고 한 이 구절에는 우러러 본다는 글자는 없다. 觀자는 그저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지 우러러 본다는 글자는 아니다.

이 시를 보면 마치 달을 예찬 한 듯하다. 萬國이 함께 바라보지만, 사

14) 김광원, 한용운의 선시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2, 113쪽.

람들은 제 각각 다르게 달 아래서 즐긴다. 인간 삶의 자유로움을 허락한 너그러운 달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3 구절에서는 너무 빛나서 취할 수도 없고, 제4 구절에서는 너무 멀어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달이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 경외감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 佛家에는 月印千江이라 하여 본래 달을 부처님께 비유한다.

이렇게 만해에 있어 달은 부처님을 형상화 할 때 사용 한 것 같기도 하다. 믿음의 대상이며, 한용운 삶의 지주 곧 불교 신앙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희망

희망을 주제로 한 시조 작품에는 봄을 素材로 한 시조들을 볼 수 있다. 「早春」 3首, 「春朝」, 「春晝」, 「尋牛莊」, 「禪境」, 「漢江에서」, 「溪漁」를 들 수 있다. 이와 시상이 통하는 한시로는 「觀落梅有感」, 「春夢」이 있고, 「養眞庵餞春」은 겸손, 「蝴蝶」은 봄의 시름을 표현한 한시 등이 있다. 한시에서는 「養眞庵餞春」과 「蝴蝶」처럼 봄을 소재로 했으면서 희망을 읊지 않은 경우도 있다.

早春

1

이른 봄 작은 언덕 쌓인 눈을 저어마소
 제 아무리 차다가도 돌는 움을 어이하리
 봄옷을 새로 지어 가신 님께 보내고자

이른 봄 아직 쌓인 눈이 녹지 않았다. 시기가 봄이 되기에는 아직 무르익지 못함을 상징했다. 그러나 하나의 희망은 자연의 섭리다. 아무리

사나운 추위라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돌아나는 새싹의 기운은 막지 못한다는 신념이다. 아무리 일제의 억압이 심하다 하더라도 봄기운을 타고 땅 밑에서 돌아나는 새싹의 기운과 같은 독립운동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주장이 배어난다.

종장에서 한걸음 더 진보한 독립운동의 실천이 있다. 가신님이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난 해외 독립운동가 혹은 이미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봄옷을 새로 지어 보낸다는 것은 바로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고 더욱 단단히 무장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早春 1」에서는 봄을 맞이한 독립운동의 희망을 그렸다.

2

새봄이 오단 말가 매화야 물어보자
 눈바람에 막힌 길을 제 어이 오단 말가
 매화는 말이 없고 봉오리만 땃더라

「早春 2」에서는 「早春 1」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봄에 돌아나는 새싹의 희망을 노래한 것과는 다르게 미래를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매화는 봄이 오기도 전에 피는 꽃이다. 새봄 소식을 매화에게 물어 본다. 그러면서 시인은 스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매서운 눈바람에 막힌 길을 어떻게 뚫고 봄이 오겠나? 그렇다고 절망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종장에서 “말이 없고 봉오리만 땃더라.”는 표현이 절망을 노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봉오리란 하나의 희망이다. 봉오리는 피어날 꽃을 미리 약속하고 있다. 봉오리는 희망을 약속한다.

「早春 2」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현실을 타개하는 매화의 의지를 그렸다. 매화에 대한 다음에 인용하는 한시는 매화에 거는 기대가 점점 없어져 가는 상황을 그렸다.

觀落梅有感

宇宙百年大活計	우주의 크나큰 조화로 하여
寒梅依舊滿禪家	禪院 가득 예전대로 매화가 벌어
回頭欲問三生事	머리 돌려 三生の 일 물으셨더니
一秋維摩半落花	한 가을 維摩네 집 반은 꽃졌네

〈增補 韓龍雲全集 I, 159쪽〉

起句에서 “우주의 크나큰 조화로 하여”라고 하고 이어 承句에서 “禪院 가득 예전대로 매화가 벌어”라고 한 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애국 선비들이 많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轉句에서는 “머리 돌려 三生の 일 물으셨더니”라고 표현하였다. 머리를 돌린다는 말은 시간의 흐름 변화의 인식이다. 三生の 일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모두다. 말하자면 ‘생각 한번 바꾸어 여유를 가져 본 사이’에 그만 세상이 바뀐 것이다.

結句에서 “한 가을 維摩네 집 반은 꽃졌네”라고 변화한 상황을 표현했다. 이 구절에서는 가을에 매화가 반은 꽃졌다는 것이 계절이 맞지 않는다. 무슨 가을까지 피는 매화가 있나? 그리고 또 “반은 꽃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사실과 다를 때에는 비유나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가을에 대한 시인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시조를 보면 가을의 이미지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아니다. 아래 시조에 대하여 고명수는 이 시조에서 만해가 “꽃에게 석양이라도 쫓려고 울타리를 자르니 생각지도 않은 西風이

불어와서 꽃을 꺾어 버렸다.”는 삶의 역설을 통해서 넘어 부재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로 삼았다고 했다.¹⁵⁾

秋花

山 집의 일없는 사람 가을꽃을 어여뻐 여겨
지는 햇빛 받으려고 울타리를 잘랐더니
西風이 넘어 와서 꽃가지를 꺾더라

〈增補 韓龍雲全集 I, 96쪽〉

이 시조에서 西風이 울타리를 넘어와 꽃가지를 꺾는 계절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喪失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維摩네 집 반은 꽃 졌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維摩는 俗家에서 보살 行業을 닦았다는 사람으로, 大乘佛敎의 經典인 維摩經의 주인공이다. 대승불교는 그 시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은 일제로 하여 나라를 잃은 것이다. 국권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이런 종교의 참요 정신이 많이 쇠약해 졌음을 반이나 꽃 졌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一秋維摩半落花”는 아무리 봄이라 해도 국권 회복 운동이 많이 쇠해 졌음을 그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봄은 희망인데, 가을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시대가 절망스러움을 그렸다. 봄꽃이기에 희망인 매화의 꺾어짐을 그림으로써 봄의 절망이랄까 상실을 가을이라는 시어로 나타낸 것이다.

3

봄동산 눈이 녹아 꽃뿌리를 적시도다
찬 바람에 못 견디던 어여쁜 꽃나무야

15)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제12집, 49쪽.

간 겨울 내리던 눈이 봄의 使徒이니라

〈增補 韓龍雲全集 I, 93쪽〉

세 번째 시조는 봄을 희망으로 그렸다. 초장에서 봄 동산의 눈이 녹아 꽃 뿌리를 적신다고 했다. 꽃의 뿌리 바로 국권 회복의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희망이다. 중장과 종장에서 꽃을 위로한다. 겨울의 눈도 봄의 傳令使라고 봄에 피는 꽃을 위로한다. 苦盡甘來 어려운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이다.

「春夢」도 봄의 희망을 그리고 있다.

春夢

夢似落花花似夢	꿈은 낙화 같고 꽃은 되레 꿈인 것을
人何胡蝶蝶何人	사람은 왜 나비되고 나비는 왜 사람되나
蝶花人夢同心事	이 모두가 마음의 장난이거니
往訴東君留一春	東君 찾아 이 한 봄을 못가도록 만들고자

〈增補 韓龍雲全集 I, 144쪽〉

꿈은 낙화 같다는 말은, 꿈 곧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시인의 불안한 느낌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꿈은 낙화이건 피어 있는 꽃이건 일단 꿈은 꽃이다. 다시 말하면 꽃은 꿈이라는 말이다.

莊子에서 말하는 蝴蝶夢은 인생의 허망함을 그린 이야기다. 시인이 인생에 대한 꿈을 일단 허망함에 비유했다. 그러나 중장에서 나비나 꿈이나, 사람이나 꽃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허망함만을 노래하지 않았다.

더구나 종장에서는 봄을 主宰하는 東君에게 부탁해서 봄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시인이 봄을 희망으로 보기 때문에 봄을 붙잡아 두려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蝴蝶

東風事在百花頭	봄바람에 꽃을 찾아 분주하거니
恐是人間蕩子流	아마도 사람이면 蕩子쫓 되리
可憐添做浮生夢	가뜩이나 꿈인 세상 꿈을 덧붙여
消了當年第幾愁	그 당시의 어느 시름 씻었던 말인가

〈增補 韓龍雲全集 I, 143쪽〉

「蝴蝶」은 봄 꽃에서 꿀을 따는 나비를 蕩子에 비유하고, 가련하게도 인생이란 게 근심에다 근심을 더 한다고 했다. 몇 번이나 시름을 씻어 버렸다는 말인가? 실로 시름 속에 살았던 지난날이다.

起句에서 봄이 되니 나비들이 꽃을 찾아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그렸다. 承句에서는 꽃을 옮겨 다니며 꿀을 따는 이런 나비들의 모습이 마치 이 여자 저 여자로 옮겨 다니는 蕩子에 비유 되었다.

轉句에서 가련하게 보고 있는 것은 浮生이 또 浮生의 꿈에 꿈을 더해 가며 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結句에서 아쉬움의 결말을 내고 있다. “그 해에는 그 당년의 근심을 몇 번이나 씻어 버렸나?”라고 했다. 이 結句 “第幾愁”에서 “第”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고, “幾”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면서 의문의 뜻도 가지고 있다. 『增補 韓龍雲全集』의 번역은 “어느 시름”이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몇 번이나 시름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다.

이 한시는 봄을 素材로 했지만 시조와는 달리 나비의 시름 나아가서 봄의 시름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養眞庵錢春

暮雨寒鐘伴送春	저녁비 종소리에 봄을 또 보내느니
不堪蒼髮又生新	흰 머리 다시 늘어 가슴 아파라
吾生多恨亦多事	한 많고 일 많은 이 몸으로야

肯將殘花作主人 나머지 꽃 주인 노릇 어찌 해내리

〈增補 韓龍雲全集 I, 153쪽〉

이 시는 起句와 承句에서 나이가 들어감을 탄식한다. 轉句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 감에도 할 일도 많고 恨도 많다고 했다. 이는 結句에서 이런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 낼 수 없다는 스스로의 겸손을 노래했다.

이 시에 대해서 이희숙은 “만해는 종소리와 더불어 봄을 보내면서 늙음을 한탄하는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만해의 탄로는 한도 많고 일도 많은 몸이라서 남은 꽃으로 그 주인 노릇을 해 낼 수가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⁶⁾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만해의 겸손 속에는 앞으로 더욱 열렬히 조국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애국심이 도사리고 있어서 만해의 결심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시를 보면 봄을 희망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 겸손 속에서 만해의 결심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한시는 그 같은 소재가 다른 주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족이지만 이 시의 結句 중 “어찌 해내리”는 “즐거 해내리”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싶다. “肯將”은 의문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肯”에는 즐긴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즐거 해내리”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3. 상실

상실을 주제로 하는 시조에는 「秋夜夢」 4首, 「秋花」, 「漂娥」 등이 있다. 가을이 素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시상이 통하는 한시에는 「秋夜聽雨有感」, 「秋曉」가 있고, 「龜巖寺初秋」는 소재는 초가을이지만 주

16) 이희숙, 만해한용운의 한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쪽.

제는 상실을 그리지 않았다.

秋夜夢

1

가을밤 빗소리에 놀라 깨니 꿈이로다
오셨던 님 간 곳 없고 등잔불만 흐리구나
그 꿈을 또 꾸라 한들 잠 못 이루어 하노라

가을밤 빗소리가 꿈을 깨게 한 원인이다. 꿈이 좋았기에 또 꿈을 꾸고자 해도 다시 꿀 수 없다. 꿈에서 만났던 님을 잃어버렸다. 가을밤 빗소리가 꿈에 나타난 님을 상실하게 했다고 표현했다.

秋夜聽雨有感

不學英雄不學仙 영웅도 신선도 아니 배운 채
寒盟虛負黃花緣 국화와의 인연만 공연히 어겨
青燈華髮秋無數 등불 밑에 흰 머리 무수한 이 밤
蕭雨雨聲三十年 떠돌기 서른 헬세 빗소리 가을 빗소리

〈增補 韓龍雲全集 I, 150쪽〉

한시에도 같은 詩題가 있다. 이 한시에서도 가을밤에 빗소리를 통하여 국화와의 인연이 어긋난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묘사 되었다. “不學英雄不學仙”하고 “寒盟虛負黃花緣”하였네라고 하여 영웅도 신선도 배우지 못하면서 한갓 서릿발 선 국화와의 인연만 어그러졌다. 이는 結句에서 “蕭雨雨聲三十年”이라고 하여 빗소리 속에 떠돈 30년의 세월 때문에 有感스러워 한다.

2

야속다 그 빗소리 공연히 꿈을 깨노
 념의 손길 어디 가고 이불귀만 잡았는가
 베개 위 눈물 흔적 씻어 무삼하리오

허송의 30년 세월 꿈을 깨어 념의 손길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불귀만
 잡고 있다. 베개는 눈물 자욱으로 얼룩졌다. 상실의 서러움을 그렸다.

3

꿈이거든 깨지 말자 백번이나 별렀건만
 꿈 깨자 념 보내니 허망할손 맹세로다
 이후는 꿈은 깰지라도 잡은 손은 안 노리라

상실의 허망함, 실현성이 없는 상상의 세계를 그렸다. 종장에서 “이
 후는 꿈은 깰지라도 잡은 손은 안 노리라.”라고 한 것은 실현성이 없는
 결심이다. 이런 결심도 모두 상실의 허전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님의 발자취에 놀라 깨어 내다보니
 달 그림자 기운 뜰에 오동잎이 떨어졌다
 바람아 어디가 못 불어서 념 없는 집에 부느냐

〈增補 韓龍雲全集 I, 92쪽〉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를 념의 발자취로 잘못 듣는 시인. 다만 오동잎
 을 떨어지게 한 바람만 나무랄 뿐이다.

秋曉

虛室何生白 빈 방안 어느덧 환해지고

星河傾入樓	은하 기울어 다락에 들어온다
秋風吹舊夢	가을바람 옛 꿈을 불고
曉月照新愁	새벽달은 새 시름을 비춘다
落木孤燈見	낙엽 진 나무 사이 등불 하나 뵈고
古塘寒水流	낡은 못으로 차가운 물이 흐른다
遙憶未歸客	안 돌아오는 나그네 생각하여
明朝應白頭	내일 아침이면 흰 머리 되리라

〈增補 韓龍雲全集 I, 150-151쪽〉

이 한시도 尾聯에서 “遙憶未歸客/ 明朝應白頭”라고 하여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 곧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사람으로 하여 내일 아침에 흰 머리로 변하는 시인을 노래했다.

龜巖寺初秋

古寺秋來人自空	옛 절에 가을 되니 마음 절로 맑아지고
鞠花高發明月中	달빛 속 높이 달린 박꽃이 희다
霜前南峽楓林語	서리 안와 남쪽 골짜기 단풍나무 숲
纔見三枝數葉紅	서너 가지 몇 잎새가 겨우 붉어져

〈增補 韓龍雲全集 I, 166-167쪽〉

이 시에 대하여 강경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 禪詩 ‘구암사의 초가을’의 내용구조를 보면, 제1행은 마음의 ‘空’을 직접 제시했으며, 2-4행은 그空的 구체적인 모습을 禪師의 눈에 비치는 가을 풍경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이 작품은 空에 대한 고찰을 要하고 있다.”¹⁷⁾

이런 해석은 김광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¹⁸⁾

17) 강경애,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학위논문, 2003.8, 27쪽.

18) 김광원, 한용운의 선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2, 104-107쪽에서 이미 강경애와 같은 해석을 했다.

초가을의 서경을 그리면서, 禪味를 내재 시켰다. 起句에서 가을이 되어 마음이 맑아 진다고 했고, 承句에서 달빛 속에 하얗게 빛나는 박꽃을 묘사했다. 하얀 달빛에 하얀 박꽃 無垢한 시상이다. 起句의 맑은 마음이 承句로 이어지면서 순백의 경지를 나타냈다. 轉句에서 아직 가을이 무르익기에는 이른 철이다. 서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結句에서 그저 서너 가지 몇 잎새가 붉은 기운을 띤다고 했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禪의 경지를 그리면서 轉句와 結句에서는 초가을의 경치를 담담하게 그렸다. 이 시에 대해서는 담담한 서경이 바로 선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통일성이 없는 詩句節의 配置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를 통해서 한용운의 고뇌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애국

애국을 주제로 한 시조에는 「우리 님」, 「男兒」가 있고, 주제가 같은 한시로는 「寄學生」, 「安海州」, 「黃梅泉」 등이 보인다.

男兒

사나이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여 볼까
 발을 팔아 책을 살까 책을 덮고 칼을 갈까
 아마도 칼 차고 글 읽는 것이 대장부인가 하노라

〈增補 韓龍雲全集 I, 96쪽〉

「男兒」는 바로 조국을 지키는 칼을 차고 글을 읽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했다. 혈기 같아서야 책을 팔아 칼만 사서 차고 싶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글도 읽어야 하니, 책도 팔아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시에서 칼은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 상징했다.

「寄學生」은 “칼을 들어 하늘 가린 가시나무를 베고”라고 하여 일제와 맞서 싸워 국권을 쟁취하는 도구로 칼을 묘사하였다.

寄學生

瓦全生爲恥	치사스럽게 살아도 치욕인데
玉碎死亦佳	옥으로 부서지면 죽어도 보람임을
滿天斬荊棘	칼 들어 하늘 가린 가시나무를 베고
長嘯月明多	길이 휘파람 부니 달빛 밝구나

〈增補 韓龍雲全集 I, 175쪽〉

이 시는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에게 나라를 위하여 뜻있게 살아야 함을 역설했다. “玉碎死亦佳”라는 구절이 그렇다. 結句에서 “長嘯月明多”라고 하여 달의 이미지가 이룩한 보람, 그 원만함을 나타냈다. 역시 칼의 이미지는 국권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다.

우리 님

대실로 비단 짜고 술잎으로 바늘 삼아
萬古 靑靑 수를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즈버 해가 차거든 우리 님께 드리리라

〈增補 韓龍雲全集 I, 97쪽〉

초장에서 “대실”이나 “술잎”은 모두 나라에 대한 지조를 상징한다. 중장에서 萬古 靑靑이라고 그 절개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조를 지키는, 지조로 만들어진 옷을 님에게 입혀서, 나라를 구하는데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님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다. 고명수는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 시조에 대하여 “시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성스럽게 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겠다는 다짐을

각 노래하고 있다.”¹⁹⁾고 설명했다. 고명수는 님을 맞이하는 준비로 옷을 지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애를 주제로 한 한시에는 안중근의사를 素材로 한 「安海州」와 황현선생을 素材로 한 「黃梅泉」이 돋보인다.

安海州

萬斛熱血十斗膽	만석의 뜨거운 피 열말의膽
淬盡一劍霜有韜	한 칼을 버려 내니 서리가 날려……
霹靂忽破夜寂寞	고요한 밤 갑자기 벼락이 치며
鐵花亂飛秋色高	불꽃 튀는 그곳에 가을 하늘 높아라

〈增補 韓龍雲全集 I, 163쪽〉

이 시는 安重根義士께서 하신 巨事を 읊었다. 이 시에서도 「男兒」에서와 마찬가지로 칼이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 상징되었다. 結句에서 “불꽃 튀는”이라고 한 것은 “鐵花亂飛”를 번역한 것이다. 곧 총을 쏘아 원수를 죽인 사실을 이렇게 짓고 번역하였다. 結句 맨 끝에 “秋色高”라고 한 것은 安義士의 높은 지조를 상징한 구절이다.

黃梅泉

就義從容永報國	義에 나아가 나라 위해 죽으니
一暝萬古劫花新	만고에 그 절개 꽃 피어 새로우리
莫留不盡泉臺恨	다하지 못한 恨은 남기지 말라
大慰苦忠自有入	그 忠節 위로하는 사람 많으리니!

〈增補 韓龍雲全集 I, 163쪽〉

黃玟께서 殉國하신 일에 대하여 永遠性を 부여하는 시다. “一暝”은

19)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제12집, 46쪽.

한번 돌아가셨다는 말이고, “萬古”는 세상에 아무리 여간해서는 이런 일이 있기 어렵다는 말이고, “劫花新”은 영겁을 두고 꽃피어 새롭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말이다. 轉句의 “泉臺恨”은 梅泉先生의 恨을 말하는 것으로 조국의 독립을 상징했다. “大慰”는 크게 위로한다는 말이고, “苦忠”은 괴로움과 충성을 같이 붙여 만든 말이고, “自有人”은 저절로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강경애는 그의 논문 「만해 한용운의 한시연구」에서 “매천의 순절을 의롭고 만고에 시들지 않을 永劫花라고 칭송하고, 저승의 한을 남기지 말라고 그를 크게 위로하는 敬悼詩이다.”라고 설명했다.²⁰⁾

이 시의 내용은 黃玑先生의 충절을 길이 이어 나가서 잊지 말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Ⅲ. 결론

이 논문은 한용운의 시조 35편 45수를 대상으로 썼다.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시조를 이 기회에 다시 평가해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시조에 대한 논문은 모두 4편이 전한다. 고명수가 시조의 주제도 분류해 보면서 시조에 대하여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韓龍雲의 시조를 관련 한시를 곁들여 읽으면서 그 素材가 주제와 연관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달과 신앙, 봄과 희망, 가을과 상실, 칼과 애국이 그것이다.

달과 신앙에서는 작품으로 「무궁화를 심으과저」를 택했다. 시조 작품 중에서 가장 달이 중심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시조는

20) 강경애, 만해 한용운의 한시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8.

모두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 편 모두에 달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달은 無窮花를 심는 곳이며, 나의 이지러진 부분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달이며, 결국 시인이 달의 빛을 따르는 시인의 신앙으로 자리잡은 素材로 그려졌다.

한시 「獄中感懷」에서 달은 獄中에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明月로 믿음의 대상이었다. 「月方中」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봄과 희망에는 「早春」 3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수는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고 더욱 단단히 결속 무장하는 것을 표현했고, 둘째 수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현실을 타개하는 매화의 의지를 그렸다. 셋째 수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고진감래의 희망을 읊었다.

봄을 소재로 했더라도 한시의 경우는 다르다. 「觀落梅有感」은 매화가 만발함을 起句와 承句에 표현했지만 轉句와 結句에서 반이나 진 매화를 그렸다. 매화를 소재로 한 시에 結句에 상실의 계절 가을을 또 다른 소재로 함으로써 봄의 희망을 꺾는 내용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春夢」은 시조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희망을 상징했다. “봄을 더 붙잡아 두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으로써 봄을 꽃, 꽃은 꿈으로 희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蝴蝶」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허망함으로 「養眞庵餞春」은 세월의 무상함을 주제로 해서 봄을 소재로 한 시지만 희망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 점이 소재가 같으면 주제도 희망을 노래한 시조의 경우와 소재가 봄이라고 주제도 희망을 나타내지 않는 한시의 차이점이다.

가을이 喪失을 의미하는 경우는 시조 「秋夜夢」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조 「秋夜夢」의 내용과 비슷한 題의 한시인 「秋夜聽雨有感」은 「秋夜夢」 첫 수와 주제가 비슷하다. 「秋夜夢」이 가을밤 빛소리로 님을 상실했다면, 「秋夜聽雨有感」도 가을밤 빛소리로 국화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묘사했다. 「秋夜夢」의 둘째 수는 상실의 서러움을 그렸고, 셋째 수는

상실의 허전함을 그렸다. 넷째 수는 상실에 대한 한탄을 그렸다. 한시에 서도 「秋曉」는 가을을 상실로 묘사했다. 그러나 「龜巖寺初秋」는 禪의 경지를 그리면서 초가을을 담담하게 묘사하여 작품 統一性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애국을 주제로 한 시조에는 「男兒」와 「우리님」이 있다. 이 시조에는 모두 칼이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조국을 지키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시에는 젊은 학생에게 주는 애국시 「寄學生」과 安重根義士의 報國讐事를 소재로 한 「安海州」와 梅泉先生의 殉國을 소재로 한 「黃梅泉」이 있다.

「寄學生」과 「安海州」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는데, 「黃梅泉」에는 칼이 조국을 위한 도구로 나오지 않고 매천선생의 절개를 높이 기렸다.

이상 韓龍雲의 시조와 한시의 대비 고찰을 통해서 시조나 한시의 소재가 주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에는 달, 희망에는 봄, 상실에는 가을, 애국에는 칼이 그 중심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한시에 있어 봄을 소재로 한 시 중에는 시조와는 다른 주제를 나타내기도 했다.

韓龍雲의 시조는 그 소재와 주제의 연관성을 달과 신앙, 봄과 희망, 가을과 상실, 칼과 애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의 경우 예외도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 韓龍雲, 增補 韓龍雲全集, 新丘文化社, 1973.
徐廷住, 萬海 韓龍雲 漢詩選, 민음사, 1999.
韓龍雲, 韓龍雲詩全集, 瑞文文庫 246冊, 1978.

- 김종근, 韓龍雲의 漢詩와 時調, 語文研究 通卷 21號, 1979.
朴沆植, 韓龍雲의 時調, 韓國文學研究 3集, 1980.
金光源, 韓龍雲의 禪詩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2.
고명수, 韓龍雲의 後期 詩와 時調, 東國語文學 12號,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2000.12.
張錫文, 卍海 韓龍雲의 漢詩研究, 江原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姜敬愛, 萬海 韓龍雲의 漢詩研究, 韓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李喜淑, 萬海 韓龍雲의 漢詩研究, 國民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時調生活, 萬海와 時調, 時調生活 62號, 2005年 봄호, 2005.

〈Abstract〉

Sijo and Chinese Poems in Han Yong-Un

Lee Jong-Goun

This thesis is about Sijo(traditional Korean poem) made-up of 35 volumes and 45 poems written by Han Yong-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appraise the Sijo which is not known to Korean people. There are four thesis about Sijo so far. Ko Myeong-su divided Sijo into separate subjects and researched it very deeply.

After I read the Chinese Poems of Han Yong-un, I research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 matter and its theme. The relationships are between the moon and religion, spring and aspiration, autumn and grief or lose, and the sword and patriotism.

I chose to discuss a Sijo 'Mugunghwa Shimeukwajeo'(無窮花를 심으과저) shich deals with the moon and religion.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is Sijo is the moon. There are three poems in this volume.

They are all about the moon. There is a Mugunghwa(無窮花) on the moon. This poem asserts that the moon is good for love, and i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poet's religion.

The moon in the Chinese poem 'Okjungkamwhiy'(獄中感懷) believes there is hope in prison. The moon in 'Wolbangjung'(月方中) is Buddhist thinking.

I researched 'Geochon'(早春) three poems about spring and aspiration. The first poem is about the independent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Autumn is about the feeling of lose in the life. Sijo 'Chuyamong'(秋夜夢) is lose the lover. The second poem is about conquering all difficulties of the poet's current circumstance. The third poem is about the feeling of vacuum in his life. The fourth poem is about deploring losing his mind.

'Nam-a'(男兒) and 'Urinim'(우리님) are books about patriotism. These poems have the subject matter of a sword for strong patriotism. 'Kiharksaeng'(寄學生), 'Anhaeju'(安海州), and 'Hwangmaecheon'(黃梅泉) are patriotic poems.

In this study, I found that the subject matter and the theme in the Chinese poems of Han Yong-un(韓龍雲) are related. Mainly he used the metaphor of the moon for religion, spring for aspiration, autumn for grief or lose, and sword for patriotism.

Keywords : Moon and Religion, Spring and Aspiration, Autumn and Lose, Sword and Patriotism, Union, Equipment, Sweet after bitter, Confidence, Lose the lover, Sword for strong patriotism